현대불교신문, 둘도 없는 도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



생사(生死)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출가해 수행자가 된 후, 몇 년이 지나 막 세상에 나온 현대불교신문을 보며 불교와 삶, 불교와 수행을 고민하던 시기가 생각납니다.

저와 현대불교신문 모두 '신참'이었지만 저와 달리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안을 거침없이 제시했습니다. 때로는 격하게 공감하고 또 때로는 나름의 해결책을 먼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30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그동안 이룬 성과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지고 대행 스님의 원력이 실현되는 것을 함께 보는 것이 즐거울 뿐입니다.

제가 소임을 맡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역시 현대불교신문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불교사회복지와 현대불교신문은 둘도 없는 도반(道伴)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사회의 목탁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법(傳法)을 위해 다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정언명령에 따라 그 몫을 다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현대불교신문 창간 30돌을 축하드립니다.

불교 발전 이끄는 언론 되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을 모든 대한민국 불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항상 불교적 시각에 입각한 불교 정론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현대불교신문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불교 언론이란 일반 사회 언론과 달리 사실 전파는 물론 불자들을 계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는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교 언론은 한국불교 전체에 공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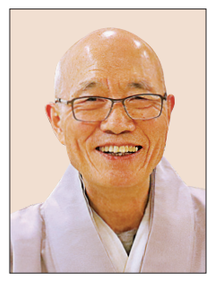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현대불교신문이 대한민국 불자들에게 불교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견을 가지고 바른 해석과 정론직필의 정직함으로 더 많은 불자들에게 다가가 많은 수행과 포교의 선두주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언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불교의 미래를 위해 불교 포교와 불법 수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많은 독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불교 발전을 이끌어가는 신문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사 묵향서 부처님 법향 느껴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불법홍포와 정론직필의 가치를 오롯이 지켜가며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30년 동안 시대의 고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불자들은 현대불교신문 기사의 묵향(墨香)을 통해 부처님의 법향(法香)을 느끼고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며 수행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종단은 현대불교신문 기사를 길잡이 삼아 청정 수행가풍 진작과 전법실현을 위해 진력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30년의 역사는 바로 한국불교 중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사회에서 불교적 가치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불교를 통해 마음의 안식과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불교적 가치에 근거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는 이제 한국불교와 불교 언론의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늘 깨어있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사부대중의 훌륭한 도반이 되어 1700년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현대불교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끌어가는 정론지 현대불교신문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생명존중 정신 일깨워 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30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하고 있는 불교계 대표 언론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인간의 삶이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자비와 연기사상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고 알리는데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必환경&그린부디즘] [기후위기, 불교가 답하다] 등 특집기사, 칼럼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교계 환경관련 소식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불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불교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는데 소중한 언론의 길을 열어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교환경연대도 현대불교신문과 손잡고 뭇 생명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의 현대불교신문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전현직 임직원과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비추고 불자들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으로 오래도록 사랑받길 기원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며 희망 주길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태효 스님



창간 이후 30년 동안 대중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때론 목탁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온 현대불교의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1994년 10월 현대불교 창간호 1면에는 정선의 금강산전도(金剛山全圖)가 실렸습니다. 그림 아래로는 "지금은 갈 수 없는 땅 오를 수 없는 산"이란 표현의 기사를 통해 불국토 금강산을 찾을 날을 기원했습니다. 창간호부터 금강산을 다뤄서인지 유독 현대불교는 남북 불교계 교류와 관련한 기사가 늘 넘쳐나곤 했습니다.

전쟁으로 소실됐던 금강산 신계사 복원이라는 성과를 남기고 금강산은 다시 갈 수 없는 곳이 된 지금, 30년 전 현대불교 창간호의 희망이 30주년을 맞는 이때 다시 한 번 이뤄지길 소원하며 불교계 평화통일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어 남북이 모두 부처님 품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 되길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희망을 주는 역할에도 충실해 주시길 바라며, 부처님 자비와 지혜가 널리 퍼져 우리 사회가 더욱 맑고 향기로워지는 데 앞장서는 현대불교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파사현정 정신으로 나아가야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교계 주요한 언론사로 성장하기까지 그동안 애써주신 혜도 스님을 비롯해 30년 동안 정론직필로 부처님의 법을 알리고 수호해온 임직원 여러분께 큰 박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길을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 불교의 사회참여와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불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원만하게 대변해 왔으며 서로 공존·공생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정보의 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30년 동안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하는 매체로 현대 한국불교의 아픔과 성장, 발전을 함께 하며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대변해 왔듯이, 앞으로도 불교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 더욱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항상 올바른 길을 나아가길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가슴 따뜻하고 생각 늘 새롭길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장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94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은 열반하신 대행 스님의 포교대중화를 위한 열망을 담아낸 실천포교의 산물이었습니다. 당시 영상포교와 문서포교의 방향을 이끌어 주신 덕분에 30년이 지난 오늘도 불교계 언론의 저변을 확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불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서른살 청년이 된 현대불교신문은 어디에도 치우침 없이 평등하고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명으로 불법홍포와 실천에 앞장서며, 불교계 언론의 길에 모든 불자 대중과 함께하는 도반이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가슴은 따뜻하고 생각은 늘 새로움을 찾아가는 청년언론으로 거듭나 불교계를 넘어 우리사회를 위해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여성불자회도 항상 소중한 인연에 함께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후원독자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발원합니다.

한국 불교계 튼튼한 버팀목

김영석 조계종 포교사단장



현대불교신문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30년 전 현대불교신문 창간은 새로운 편집과 구성으로 불교언론의 저변화를 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진취적인 논지와 함께 포교분야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온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동안 한국불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현대불교신문사의 여러 사업들이 오랫동안 튼튼하게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

포교사단은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라는 기치 아래 군부대, 교도소, 탈북자이주민, 어린이, 독거노인 등 그 어떤 대상이든 항상 최일선에서 현장포교에 매진해왔습니다. 발로 뛰며 직접 현장을 누비는 것은 포교사와 기자의 공통점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곧 포교사입니다.

언론은 건전한 비판과 공정한 보도가 생명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 직면하더라도 현대불교신문이 불교언론계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회 주 밀운부림
교구장 호산
어산어장 인묵 학장 정원

총무국장	보관	문화원장	성일
기획국장	향성	종책실장	덕산
교무국장	용안	문화국장	혜복
재무국장	성우	사회국장	법륜
포교국장	덕월	호법국장	현묵
전법국장	혜교	복지국장	혜각
연수국장	청효	총무과장	보원
문화특보	혜공	사회특보	도심
정무특보	혜성	복지특보	무일
전법특보	묘수	복지특보	최종환



부처님 법 전합시다

천년고찰, 부처님 법 전법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부평리) /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사무실 : 031-527-1951~2 / 팩스 : 031-527-8568 / 종무실 : 031-527-1956

봉선사 산하기관 학교법인 광동학원(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의정부 광동고등학교)/연꽃유치원/남양주시 노인복지관/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남양주시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보호작업장/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남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구리 실버인력뱅크/구리 인창경로식당